



## 라파엘 톡

허석훈 루카 영성위원장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철학과 교수

### 인간의 초라함

캐년(Canyon)이라는 생소한 대자연의 품 안에 안겨 두 주간의 휴가를 즐겼습니다. 위대한 어머니이신 자연의 품속에서 인간의 작음을 느끼고 돌아온 휴가였습니다. 어떤 조각가도 깎아낼 수 없는 절벽과 어떤 인공적 힘으로도 만들 수 없는 폭포,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채, 고스란하게 남겨진 돌무더기들이 만들어 내는 향연, 그리고 지구라는 별이 창조된 신비를 느낄 것만 같은 지구 내면의 감추어진 힘을 마음에 담아 왔습니다.

휴가 기간 내내 한일 두 나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뉴스를 접해야 했습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출 수 없는 두려움, 당장의 자존심과 국익이 알량한 정치철학이 되어버린 초라한 인간들이 만들어 낸 불화! 하루가 멀다 하고 혐한 방송과 거짓 뉴스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일본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의 방송이나 뉴스는 그나마 품위 있어 보였습니다. 철학과 문학이 꽤 발달한 문명국에서 행하는 일이라고는 잘 믿기지 않는 행태가 마음 씹쓸하게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지성으로 무엇을 안다고, 그리고 확신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확인했고, 네가 확인한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수준의 앎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무화(無化)되는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초라함보다는 인간 지성의 위대함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수만 년 아니 수억 년을 견디며 진리를 담고 있는 세상의 품 안에서 백 년을 살다가는 우리네 짧은 인생살이! 세상을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려 하기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 8, 32)하신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 진정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OSA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시와 삶의 이야기'



울고 싶어도 못 우는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울어 줄게  
마음 놓고 울어 줄게  
오랜 나날  
네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 받은

모든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  
푸르게 푸르게 내가 대신 노래해줄게  
일상이 메마르고 무디어질 때  
새로움의 포말로 무작정 달려올게

파도의 말, 이해인

저는 어릴 때부터 유독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때, 바다를 보며 수도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제 필명인 '이해인'이라는 이름도 바로 부산 광안리 바다에서 따왔습니다. 바다 해(海)자를 넣고, 논어의 글귀처럼 수도자의 모습은 어진 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질 인(仁)으로 지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낭송한 '파도의

말'은 본격적으로 수도생활을 시작할 무렵, 처음에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쓴 시입니다. 또한 제가 암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문병오신 분들이 저에게 울어달라고 한 시이기도 합니다. 울고 싶어도 못 울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7월 14일, 라파엘 인문학 아카데미 ROSA(Raphael Open Social Academy)는 수도자이자 시인으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해인 수녀와 함께 '시와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김종기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해인 수녀는 2008년 대장암 수술 이후 투병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고통과 깨달음을 담아낸 시집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에 수록된 '파도의 말'을 청중들과 함께 낭송하며 이날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 중간에는 수녀님의 시를 노랫말로 담은 크로스오버 듀오 '메타노이아'의 노래도 더해져 더욱 풍성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수강생 A씨는 "요즘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수녀님께서 쓰신 시를 읽으며 강의를 들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강의에는 22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워 따뜻한 치유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이해인 수녀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날 강의에 소개되었던 몇 편의 시와 함께 이해인 수녀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람에 실려  
푸르게 날아오는  
소나무의 향기 같은 것  
꼭꼭 씹어서 먹고 나면  
더욱 감칠맛 나는  
잣의 향기 같은 것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할 때의  
평화로움 같은 것

누가 나에게 싫은 말을 해도  
내색 않고 잘 참아 냈을 때의  
잔잔한 미소 같은 것  
날마다 새롭게  
내가 만들어 먹는  
기쁨 과자, 기쁨 초콜릿,  
기쁨 음료수  
그래서 나는  
평생 배고프지 않다

기쁨의 맛, 이해인



강의를 갔다가 학생들을 만나면 '언제 삶이 즐겁고 행복하나'는 질문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뜻밖에 슬픔이나 시련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이 더 오더라'는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할 때의 평화로움, 누가 나를 안 좋게

말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있을 때, 그 상황을 역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훨씬 더 행복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 덕목을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실천한다면, 분명히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 이해인 수녀님의 고운말 차림표

- 1)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은 하지 말자
- 2) 비교하는 말을 할 땐 신중하게 하자
- 3)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푸념, 한탄, 불평은 자제하자
- 4) 애덕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치자
- 5) 사람이든 사물이든 함부로 비하하는 말을 삼가자
- 6) 농담이나 유머를 지혜롭게 하자
- 7) 비록 흉을 보더라도 좀 더 고운 말로 순화시켜서 하자
- 8) 자신을 표현할 땐 잘난 체하지 않는 겸손함을 지니자
- 9)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하자
- 10) 기분 좋은 상징 언어들을 자주 사용하자

제가 쓴 <고운 마음 꽂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에 실린 '고운말 차림표'예요. 그 중 저는 1번을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 말이 너무 강해졌다고 느낍니다. 정치인들의 말들도 그렇고요. 수녀님, 신부님들 조차도 말을 거칠게 하실 때가 있지요.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글에도 썼지만, '오늘은 어제 내가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내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이다'라는 말이 있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을 막

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이 깎이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저는 그래서 고운 말에도 차림표가 있다는 마음을 표현해서 이 '고운말 차림표'를 만들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자신의 말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대로 실천이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수련을 해야 합니다. 나름 대로의 구체적 메뉴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점차 실수가 훨씬 줄어들게 될 거예요. 각자의 '고운말 차림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 라파엘클리닉 천안분소 개소 축복식

**진료장소** 하나은행 천안역지점  
2층(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67)  
**진료일정** 매주 일요일  
10:30~14:00  
**진료과목** 내과, 외과, 치과  
(내과 및 외과 격주  
운영)  
**문의** 02-763-7595



## 라파엘 삼척 이동클리닉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에 강원도 삼척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의료지원활동인 ‘라파엘 삼척 이동클리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라파엘클리닉을 비롯한 포스코건설과 포스파워, 두산인프라코어 임직원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약학대학,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삼척 마이스터고 강당에서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에게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한방과 등 의료검진 활동을 실시하고 치료가 필요한 주민들은 삼척 인근 병원으로 직접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진료를 통해 더운 여름철 삼척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2019 동아리 신규봉사자 교육

7월 6일과 13일, 2주에 걸쳐 라파엘센터에서 동아리 신규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16개 동아리 및 일반봉사자 등 총 138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라파엘클리닉 김창덕 대표이사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라파엘인터내셔널 안규리 이사장의 라파엘 사업 소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나눔의 의미’를 주제로 라파엘나눔 김전 이사장의 짧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감염관리 교육 및 진료 프로세스 등 봉사자가 알아야 할 봉사 메뉴얼에 대한 교육 및 설문조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라파엘클리닉 봉사활동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꾸준한 활동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자 지원 소식

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6월	(중국/1979년생/여) 내과진료비	259,500원
	(중국/1933년생/여) 내과진료비	1,625,100원
	소계	1,884,600원
지역 네트워크	충북 외국인 무료 진료 11명 검사비 지원	216,320원
	소계	216,320원
	계	2,100,920원

## 릴레이 봉사자 열전

진단검사 배선하 봉사자



## 환우들의 편지

### 익명

여기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익명

매순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배선하 마리아라고 합니다. 현재 종합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며 틈틈이 라파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라파엘에서 올해 초부터 봉사를 시작한 새내기 봉사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터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불규칙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 ‘한 달에 한 번도 겨우 참석하는 거라 과연 내가 할 자격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느낀 감정들과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봉사하기를 망설이는 다른 많은 봉사자들을 라파엘로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Q. 라파엘과는 어떻게 인연이 되었나요?

A. 라파엘과 저의 인연은 제 아버지와 라파엘 파견 수녀님이신 베난시아 수녀님과의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베난시아 수녀님께서는 아버지의 중고등 학생 시절 주일학교 담당 수녀님이셨고, 그 인연이 저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녀님의 소개로 라파엘클리닉이란 곳을 알게 되었고 ‘간호사이니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에 라파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Q. 봉사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면?

A.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군뜩 같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저의 짧은 영어실력은 매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ㅠㅠ 그럴 때마다 정말 제가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언어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 장애물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 Q. 코디네이터 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 코디네이터라고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감이 오지 않는데, 한마디로, 각 층의 ‘지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층마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고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문제가 생겼을 시 해결하는 등 원활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Q. 라파엘 봉사자로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A. 앞으로 오랫동안 라파엘 봉사자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라파엘클리닉을 방문했던 날,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그 첫인상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저렇게나 많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라파엘을 방문하는구나’를 몸소 느꼈었고, 긴 줄의 끝을 따라 진료소 안으로 들어가 본 광경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 안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많은 봉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했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그들을 돋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나도 그 중의 한 사람이 되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방문 후,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하자’는 저만의 목표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라파엘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니 라파엘 클리닉의 활동들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소 및 진료소가 개소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라파엘 천사들이 필요할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신장내과 몽골 의료진 초청연수

2019년 5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8주간에 걸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몽골 의료진 솜트에르덴(울란바토르 송도 병원 신장내과 의사)과 오트컹싸지(국립 제1병원 신장내과 간호사)의 초청연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오국환 교수(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지도로 종양학, 급성신장손상, 사구체신염 등 내과 및 신장내과 사례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연수생들이 라파엘 초청연수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 몽골의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1학기 수료식

7월 3일, 라파엘센터에서는 4월부터 진행된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의 1학기(주제:노인의료)를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오범조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의 1학기를 마무리하는 강의가 끝난 후, 김창덕 대표이사(라파엘클리닉)의 강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학기에는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 1학기 강의에 10회 이상 꾸준히 참석한 13명의 수강생들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2학기 시니어 아카데미는 '건강과 사회'를 주제로 8월 28일에 개강합니다. 개강식을 축하하며, 첫 번째 강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개강좌를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 '싸움'

7월 8일, 라파엘센터에서는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가 '싸움'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남녀간의 사랑싸움부터 죽음을 불사르는 격렬한 싸움까지 다양한 '싸움'을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남성들의 싸움'을 시작으로, 조셉 라이트와 토레의 '아이들의 싸움'을 표현한 작품, 사자, 뱀 등 '동물과의 싸움'을 그린 페테르 파울 루벤스와 프란츠 폰 슈투크의 그림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널드 브륄린,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여자를 두고 벌이는 다툼'과 '게임을 하면서 싸우는 장면'을 그린 얀 스테인의 작품, '여자들끼리의 싸움', '결투 신청', '스포츠 경기로서의 싸움인 레슬링'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싸움을 생생하게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수강생은 "갈등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 작품에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더해져서 실제 그 싸움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강의는 9월 9일, '여자가 그린 그림'을 주제로 계속됩니다.

\*강의신청 및 문의: 02-744-7595



##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식 특강 공개강좌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식 특강 [공개강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방향

2019. 8. 28. (수) PM 6:30 | 서울대학교병원 CMI 서성환 연구홀  
모집인원 | 130명

라파엘나눔재단  
Raphael Nanum Foundation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의료관리학 교수를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19대 국회의원  
으로 보건복지위원을 맡아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국민 건강보험의 출범과 문재인 캐어 실시, 의약분업의 실현에 기여했  
으며, 현재 건강보험 이사장으로서 건강보험 발전과 보장성 확대에 앞장  
서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의료관리>, <의료, 이렇게 개혁합시다>,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 등이 있다.

협력 및 후원 SNU MEDICINE hywell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강의 신청 및 문의 02-744-7595  
raphaelnanum@naver.com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싸움'

##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사마르칸트의 비비하님궁전



사마르칸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이 될 뻔했던 비비하님 모스크 이야기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위대한 정복왕이었던 아미르 티무르왕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비비하님이다. 왕은 이 아름다운 아내를 너무도 사랑하고 아꼈다는데 왕은 항상 궁을 비우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다. 왕은 혼자 지내는 아름다운 아내를 위해서 그 당시 최고의 모스크를 짓기로 한다. 그 당시 최고의 건축가를 불러와 호화로운 재료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고 한다.

▶ 아미르 티무르왕의 동상. 말을 탄 정복왕의 모습이다. 타쉬겐트

그런데 잘 나가던 건축 과정에 돌발상황이 터졌다. 어느 날 이 모스크 건축을 보러 왔던 아름다운 비비하님을 본 건축가는 그만 짹사랑에 빠져 버렸다. 이후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아름다운 비비하님의 모습만 그리워하게 된 것이다. 왕이 돌아올 시간은 가까워오는데 자기 이름을 딴 아름다운 모스크의 진척이 없어 비비하님의 애가 타 들어간다. 어떻 게든 건축가의 능력을 건축에 쓸게 하려고 건축가를 구슬려보아도 건축가는 오직 비비하님을 향한 사랑 밖에는 안중에도 없다.

어느 날 비비하님은 건축가에게 삶은 달걀을 두 개 보낸다. 하나는 겉 껍질이 하얀 달걀, 또 하나는 겉 껍질이 누런색의 달걀이었다고 한다. 건축가는 처음 이 선물을 받고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 꽁꽁대던 건축가는 갑자기 무릎을 친다. 비비하님의 수수께끼 같은 선물의 뜻을 불현듯 이해하게 된 것이다. 비비하님의 뜻은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다. 달걀의 겉껍질이 달라도 먹어보니 똑같지 않던가?' 그러니 나한테 오매불망 매달리지 말고 다른 여자를 찾아라.....'

▶ 비비하님 모스크 15세기 사마르칸트. 아름다운 비비하님을 위해 그 당시 최고의 역량을 모아서 짓던 아름다운 모스크였지만 이후 쇠락했다.



이런 뜻을 이해한 건축가는 비비하님에게 답을 보내게 된다. 이번에는 똑같은 모양의 병 두 개에 하나는 물을 담고 또 다른 병에는 색이 없는 술을 넣어서 보냈다고 한다. 똑같아 보이지만 먹어보니 다릅니다.....

밀고 당기던 비비하님과 건축가는 결국 담판을 하게 된다. 건축가는 비비하님에게 "딱 한 번의 키스를 허락해 준다면 자기가 마음을 돌리고 건축에 매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비비하님도 '딱 한 번의 키스 정도라면.....' 하는 마음에 이를 약속하게 되었단다.

결국 비비하님과 건축가는 한 번의 키스를 하게 되었다. 그 키스가 어찌나 격렬했는지 비비하님의 입술이 통통 붓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뿔싸, 아미르 티무르왕이 인도 원정에서 예정보다 훨씬 일찍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온 왕이 비비하님의 부은 입술을 보고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결국 비비하님은 죽음을 맞게 되었다. 건축가는 낌새를 채고 멀리 멀리 도망갔다는 이야기이다. 이후 가장 아름다웠던 미완성 비비하님 모스크는 버려진 채로 있었다. 혹시 사람이 들어가면 어디선가 돌이 떨어져서 사람이 상하는 일이 생겨서 흉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 전설의 요지이다.



▶ 비비하님 모스크 앞의 커다란 코란을 펼치기 위한 석조 책상



▶ 비비하님 모스크의 내부. 흉가 같고 천정에서 돌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은 훨씬 전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다.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정복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주인공이다. 알렉산더에게는 아주 총애하는 캄파스페라는 이름의 애인이 있었다. 항상 곁에 두고 싶었지만 왕은 전쟁터에서 나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위험한 전쟁터에 캄파스페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 그 대신 캄파스페의 초상화를 지니고 다닐 생각를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초상화가인 아펠레스를 부른다. 아펠레스에게 주어진 임무는 캄파스페의 아름다운 나신을 그리는 것이었다. 알렉산더가 원했던 것은 그냥 초상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캄파스페의 누드였다. 주저하는 캄파스페에게 화가 앞에서 옷을 벗게 한 알렉산더.....



▶ Giovanni Battista Tiepolo: Alexander the Great and Campaspe in the Studio of Apelles 1740 Paul Getty Museum. 이 그림에서 알렉산더와 캄파스페의 다정한 교감은 보이지 않는다. 상반신을 벗은 캄파스페의 표정이 뾰로통해 보인다.



▲ Francesco Trevisani: Apelles Painting Campaspe 1720 Norton Simon Museum Pasadena

여러 날이 지난 후 알렉산더는 캄파스페의 초상화가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해서 화실을 불쑥 찾아가게 된다. 문을 연 알렉산더는 눈 앞에서 보이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화가 아펠레스와 캄파스페가 부둥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알렉산더의 눈에 시퍼런 불꽃이 튀는 순간. 아펠레스와 캄파스페는 얼어붙었다. 이제 저 둘은 죽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알렉산더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다가왔다. 그 다음 장면은 가히 놀랍다. 한 손으로는 아펠레스를 또 다른 손으로는 캄파스페를 잡아서 가까이 해주면서 저 둘을 축복해주었다. 너희 둘이 사랑한다니 너희들을 축복해주겠다는 것이 이야기의 요지이다.

이 이야기는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범하고 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예로 많이 이야기된다. 비비하님의 이야기와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이고 알렉산더가 대범하고 쿨한 사람이라면 티무르왕은 속좁은 사람이었을까? 과연 그럴까?

티무르왕에게 비비하님은 어떤 존재이었을까? 아마도 ‘대체불가’한 존재이었을지도 모른다. 비비하님의 통통 부은 입술을 본 왕은 우선 배신감에 치를 떨고, 곧이어 상실감에 좌절했다. 나아가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입어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히 카오스 상태에 빠졌음에 틀림없다. 반면 알렉산더에게 캄파스페는 ‘대체가능’한 존재 아니었을까? 이 빠진 그릇은 버리고 다시 사면 된다는 생각은 아닐까?



그건 그렇고..... ‘껍질의 색이 달라도 먹으면 똑같다’라는 비비하님의 말은 꼭 육체적인 사랑을 빛댄 것 같은 느낌이 듦다. 이에 반해 물과 술의 비유는 좀 정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흔히 남자는 ‘짐승’이라 육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면이 좀 더 크고 여자는 좀 더 감성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면이 더 크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던 여행자에게는 이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 여자인 비비하님이 육체적 사랑을 말하고 남자인 건축가가 정서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한 가지..... 캄파스페는 왜 아펠레스에게 빠졌을까? 세계 최고의 영웅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말이다. 너무 잘난 남자, 세상을 주무르는 남자보다는 신분은 훨씬 낮지만 다정다감하고 예술적 감성이 있는 남자 한테 끌렸을까? 알렉산더가 캄파스페에게 화가 아펠레스 앞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을 때 캄파스페는 아마도 심한 수치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 Auguste Ottin: Alexander의 명령에 따라 Apelles 앞에서 옷을 벗는 Campaspe 1883 루브르 박물관 파리. 애인이자 왕인 알렉산더의 명령으로 옷을 벗어야 하는 캄파스페의 표정이 좋지가 않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Ottin의 ‘알렉산더의 명령에 의해 아펠레스 앞에서 옷을 벗는 캄파스페’를 보면 캄파스페의 표정이 좋지 않다. 더욱이 테에플로의 그림 속 캄파스페와 알렉산더의 표정은 그다지 애틋해 보이지 않고 캄파스페는 좀 뾰로통해 보인다. 남녀간의 일은 둘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 Gaetano Gandolfi: Alexander Presenting Campaspe to Apelles 1793. 흡집이 난 그릇은 남에게 주어 버리는 알렉산더

6월, 7월 진료에 수고해주신 진료부와 진행부

진료부	
가정의학과	강울림 강창랑 고윤미 김상희 김수아 김열자 김재호 김정순 김하진 김호준 남명우 민성준 박혜아 박훈기 신운영 오형석 우의정 유효시 윤경애 이석영 이호범 장영진 전한조 조재연 한실비 흥두루미 홍성휘 <b>천안</b> 서윤석 염향택 이철호 임형택 장호선
내과	강유민 강창량 고현길 김경목 김상훈 김승정 김은선 김태영 백도영 소수웅 윤준관 윤지영 이강원 이성곤 이수진 이재동 이한아 이호영 이희석 임수빈 임지환 임현성 정유승 조성철 조성태 차한희 <b>동두천</b> 강민우 강민정 맹밀호 손형은 윤동환 이수진 정성빈 <b>삼척</b> 권혁준 김자덕 임선영 <b>천안</b> 류성희 박경식 박상은 융호진 장호선 허 준 김상혁 민경완
당뇨클리닉	김현정 박운형 조성민 최우종
마취통증의학과	<b>삼척</b> 지슬기
비뇨의학과	김 명 김한익 김희승 남지나 서준교 이영주 이정우 임지은
산부인과	김리나 김성훈 김소희 김은성 김현영 이동윤 이미영 이예지 이택상 임현지 주세경 주창우최 진 한경희 <b>삼척</b> 송재운 정의식
소아청소년과	<b>삼척</b> 유 영 <b>천안</b> 서윤석
신경과 신경외과	김예림 김종필 박기홍 신제영 홍윤호 고영조 김명수 박성배 오지현 이채혁 조성민 최찬영 한성렬
심장클리닉 안과	임준성 홍석근 김미정 도상희 박채린 이수정 정호경 최진석 최혜선 <b>삼척</b> 원종상
영상의학과	강정임 김수연 신승이 윤순호 장정민 조현자 이수현 최승호
외과	김영석 김영아 노민수 윤윤진 이은숙 이호석 장혜경 최용관 <b>천안</b> 김성태 김종현
이비인후과	김성희 서인석 신동봉 이강수 한창준 <b>삼척</b> 김성현 김성희 김호찬 박호정
재활의학과	강성민 고주영 김선형 김인희 서경천 신대엽 윤수훈 윤재현 이반형 <b>삼척</b> 노준수 신세영
정신건강의학과	송유진 안예빈 채수현 최대인
정형외과	박건우 송금영 이경학 이승희 정희숙 조범철 <b>천안</b> 권 희 김성태 김종필 <b>삼척</b> 문종렬
치과	강민구 강정민 강현규 강현숙 곽난희 김만진 김선아 김선희 김성조 김성준 김세진 김은기 김한별 김한석 김훈재 문상운 박명섭 박성희 박재홍 백지연 손준성 안교진 유태준 유휴정 이기정 이병화 이성영 이승우 이영은 이지예 이진경 이현미 이현후 전성우 진소정 최광수 최한을 하수웅 홍준희 <b>동두천</b> 곽기재 김대웅 박성욱 서민성 이광섭 임미애 임한기 차재원 <b>삼척</b> 김동욱 이동환 이연화 최연조 <b>천안</b> 권성미 김기환 박미정 신동훈 신준희 원상연 원상태 유용복 윤선웅 이규태 이성국 이정석 이현정 최용석 홍기석
피부과	김민수 김지원 노기영 유다애 이상훈 지민선 허보윤 <b>삼척</b> 김대연 김한나
한의과	<b>동두천</b> 권현미 김린애 김민정 김상현 김용성 김태희 황성민 <b>삼척</b> 민백기 <b>흥부외과</b> <b>삼척</b> 김창희 이성호
간호사	강인화 강현숙 고성희 고정희 고희연 권순주 권종선 김미정 김민정 김순애 김현진 나경미 박경애 박미숙 박순화 박은주 박현숙 박희순 배선하 서우나 서우빈 성정희 소리나 송다연 송미라 신영미 신주아 양명실 오선주 원혜경 윤희우 이보라 이수미 이영희 이현경 임경민장선미 전예진 정미순 정유경 정유민 정유선 조영순 채혜정 최민서 표육경 환은자 <b>동두천</b> 송순의 송한순 유대순 주선경 <b>삼척</b> 김경미 김귀자 김민옥 김보미 김유미 김윤순 김진숙 장은진 <b>천안</b> 강혜숙 김미현 류주연 박정화 염혜영 이미래 이병은 이은경 이은희 조미현 진혜경 <b>동두천</b> 남연주 김창민 장영욱 조아라 최문석 엄미선 박수현 시자차 임민규 김 솔 김 솔 김은경 민경은 안금선 이소영 이소정 이지은 정유미 조영숙 <b>동두천</b> 김광현 조은주 <b>천안</b> 권순주 권성미 김예빈 김황순 박미정 박소라 박은영 심예선 이정식 이지혜 이진민 이현정 임정희 전유정 최예지 홍인애 김경자 김다원 김양민 김현숙 박효숙 손윤아 심명희 박희진 이민락 장은숙 정혜원조현무 차희수 최혜경 함경희 홍성민 <b>동두천</b> 김부권 김준수 박지혜 이신우 이정웅 조은진 <b>삼척</b> 김보영 김진여 김학철 안시용 정지원 <b>천안</b> 김지혜 유소연 조현숙 최초영 활동숙 <b>숙대역</b> 김성숙 김부현 양근해 이영희 장은숙 정혜원 차희수 최현주 최혜경 백심성 김희정 오선주 장혜숙 채혜정 최민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약사	
코디네이터	

진행부

6월 ~ 2019년 7월의 라파엘 천사입니다.

강남구  
고지연  
김돈규

강 후

제5회 몽골·미얀마·네팔 의료지원을 위한

라파엘나눔재단

Raphael Nanum Foundation

라파엘

# 몽미네 사랑나눔 바자회

2019.10.12. 토

11:00~17:00 라파엘센터

후원계좌 신한 100-031-742996 (재)라파엘나눔

##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참여안내

**바자리켓** 02-744-7595 사전신청 또는 현장판매  
(1매 10,000원)

**기증품 보내실 곳**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7 라파엘센터  
\* 중고품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수익금은

### 몽골

1. 현지교육세미나
2.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3. 소아심장병수술 역량강화사업
4. 라파엘봉사단 지역사회 무료진료
5. 초청연수

### 미얀마

1. 장기이식 역량강화사업
2. 결핵검진사업
3. 자궁경부암 검진·교육사업
4. 초청연수

### 네팔

1. 지역보건의료지원
2. 소아심장병수술 역량강화사업
3. 초청연수

를 위해 쓰입니다.

## 라파엘 몽미네 사랑나눔 판매물품

가공식품, 문구, 잡화, 의류, 화장품, 푸드코트,  
현지물품(몽골 카시미어, 미얀마 커피 등)



## 오는 길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43길 7  
라파엘센터

### 문의

02-744-7595

